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순교자 대축일미사

기도서 496 편(B해)
제1독서 : 2역대 24, 18-22
제2독서 : 로마 5, 1-5
복음 : 마태 10, 17-22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
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 22).

□ 강론



보람된 삶을...

김진석 신부

오늘은 온 한국교회가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성
인사체를 각별한 정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주님의 교회가 조선땅에 터
전을 마련한지 60년 만에 우리 겨레로서는 처음으로 사제
로 서품되신 분이요(1845.8.17). 이분의 생애는 인간적
으로 볼 때 세인의 부러움을 자아낼만큼 화려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신부가 되기 위해 어린나이에 부
모를 떠나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는 외국에서 공부하실
때부터 온갖 형태의 고생을 성숙을 위한 안내자로 맞이
해야만 하셨던 분이요. 또, 서품후 조국과 겨레에게 참
다운 빛과 확실한 희망을 전해주기 위하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하셨지만, 조국은 이분을 따듯이 맞이하기
는 고사하고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다가 급기야는 생명까
지도 무참하게 앗아갔으니(1846.9.16) 누가 그분의 생애
를 부러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추모
하여 기리는 것은 한 젊은 사제의 죽음이 안타깝기 때문
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영생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이며, 빛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 완전한 사랑의 경지에 이
르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활로 드러내셨던 철저한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 중에도 진리를 체득했던 한 젊은
이의 노력이나, 죽음이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이웃을 위
하여 희생과 봉사로 점철된 그분의 생애를 찬양하는 것
만이 오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분을 참되게 기념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분의 얼을 본받고, 그분이 했던 것과 같이 하느님께 대
한 굳은 믿음을 지니고 참된 빛과 진리의 증거자로 살아가
면서 이 시대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현실은 하느님과 이웃을 의면해야만 하는 이기
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치달는 듯하다. 돈과 권력
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사조는 사회의 가치
관을 전복하여,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게 하며, 억압과 반항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조장하고 되풀이하게 한다. 이러한 삶의 구
조 안에서는 약한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아 노예처럼
혹사시키는 불의가 자행될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사람
들의 절규는 그 도수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인간 경시 풍
조를 타파하고, 상실되어 가는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
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한다. 비록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할지
라도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
로.
(광주 가톨릭대학)



바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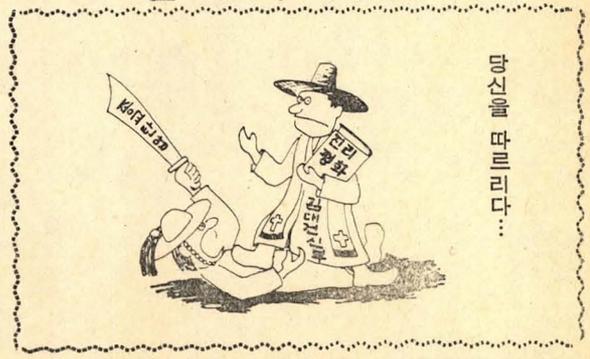
기압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거나 혹은 사람이 일으키
는 '공기의 흐름'인 「바람」은 이 무더위에 땀방울을 식
혀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런가 하면 이맘때쯤 부는 태풍
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교만한 인간의 콧대를 꺾기도 한
다. 이러한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 말고도, 바람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좁은 울안에서만 살던 사람이 대처 바람을 쐬고 오면
그 도량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아무래도 새 바람은 사람
의 몸과 마음을 일신시키기 때문이다. 바티칸 제2차 공
의회를 열 때에도 교황께서는 창문을 좀 열고 새 바람을
맞보자는 속깊은 말씀을 하셨다지 않는가. 세상이 갑갑
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갈망하게 되
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바람
을 쐬이려 마당을 거닐기도 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다.

때가 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얻어 산과 바다
를 찾아 나설 계획에 들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지 벌써부터 백화점의 썬거리 잔치(바겐 세일) 광고도
피서용품에 관한 선전이 대중을 이르고 있다. 그리고 여
성잡지의 특집도 피서지 안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
기다가 국회의원들까지도 외유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 바람을 쐬고 오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내일에 활
기를 주니까.

허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은, 헛바람을 맞으면 안
되는 일이다. 휴가를 이용한 바람쐬기도 내일의 활력을
위해서임을 생각해서 분에 넘치지 않아야 한다. 한창 의
화결약을 해야 할 이때에 나서는 국회의원의 외유도 '국
민을 사람답게 모시는' 선진국들의 참바람을 쐬임에 있
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바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손바닥만 내젓는 어리석음도 깨우쳐야 한다.

숨 정 이 산책



당신을 따르리다...

기적의 힘이 나간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 마르5:30

「하혈하는 부인」(마르 5:25-34) 이야기는 약 2천년 전에 유다의 한 부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결과, 치유를 체험한 내용이다. 이것은 성서의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마르코 자료(資料)에 속한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간단하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하고 지극히 교훈적이다. 첫째, 「기적의 힘이 나갔다」. 하혈하는 부인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이 빠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부(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는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고후 8:9, 이사 53:5, 요한 3:16).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후 8:9). 죄의 「응어리」속에서 「나병환자」처럼 된 우리들 자신이 이제 회복되어 환희와 감사생활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주 예수의 능력이 소모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감사의 정의(情意) 속에 죄를 안지으려는 우리의 노력과 기도의 「원동력」이 있게 된다(히브 6:5,6).

둘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가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한것은 치유의 사실이 순화된 「신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혈하는 부인은 이제 병이 나은 것 밖에는 모른채, 죄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 여자를 찾았던 것이다. 예수는 이 사실을 그 여자에게 납득시킨 다음에, 「네 신앙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였다.

신앙은 천하의 공사(公事)이다. 세상에는 이 이상 공사가 없다. 신앙은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에서 굳혀진다(롬 10:10).



*** 우리 모두 관심을! ***

농촌 교회를 위한 월간지 —주님의 날— 7월호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200여 곳에 공소를 둔 우리 교구는 공소사목에 무실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화 현상은 전 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 단위의 공소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진지하게 미치지 못함은 솔직히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무엇보다도 공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활성화와 보다 깊은 신앙을 돕기 위해 교구 홍보국에서는 공소사목을 위한 작은 월간지를 발간한다.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그 창간호를 내게 되는데...」
—4월 7일자 3면 나눔의 뜰에서—
공소신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조용하게 커 가고 있는 주님의 날이 4호(7월)부터 새로운 편집과 함께 내용도 더 다채로와 졌다.

예절중심으로 퍼내던 것이 폭을 넓혀 주일 공소예절을 비롯하여 전례, 교리, 교구 성인전, 생활나눔, 농사법 안내, 명상 등 다양하게 나와 공소신자들 뿐 아니라 모든 농촌신자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여러 공소에서 많이 활용해 주십에 감사드리며 본당에서는 공소에 주님의 날을 보내는 아름다운 마음들도 기대해 본다.

또한 신자들의 좋은 글을 기다리고 있다. 시, 수필,

소설, 특주감, 신앙체험 등 나누고 싶은 아름답고 소박한 내용으로 원고 6~8매 정도면 된다.

겨 자씨처럼 작게 시작된 주님의 날이 농촌신자들의 모든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7월호 차례

- *말씀—고쳐야 할것이 많은데... (김병운 신부)
- *이달의 전례—성 김대건 신부의 옥중서간
- *약수터
- *교구 성인전③—손선지·베드로
- *교리교실—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 *마당—시: 농약냄새 (정인섭)

수필: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던데 (천진)

- *각 주일 예절안내
 - *7월 축일표
 - *7월 교구 행사표
- 구독신청은

[520-0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홍보국 ⑤ 0041~3

우편대체 400010-31-9026907

날권—300원, 6개월—1,500원, 1년—3,000원. 많은 보급을 위해 가격을 500원에서 300원으로 했습니다

밝은 눈, 맑은 눈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 혼수(회갑)웃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친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 도매상

서울주단

☎ ⑩0453 ⑩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집(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특약점

☆코오롱 단체복 주문안내

직장 남·여 근무복, 단체복, 체육복, 기타 특수복
(회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백화점, 공장, 병원, 사회단체, 학교)

주: 김 아드리아노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 ⑧ 8415
(전북은행 중부지점 앞)

교 구 소 식

1. 주교님 해외교회 사목출장: 7월 9일~8월 12일까지 ※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해외선교사 1차 출국-정승현 신부님께서 주교님과 함께 파견지 케루에 가십니다.
2. 이리지구 성실하신 정녀 꾸리아: 7일 오후 2시
장소-창인동 천주교회, 대상-쁘레시디움 간부들
3. 제25차 전주교구 소년 꾸리아 회의: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전동 천주교회, 대상-쁘레시디움 간부들
4. 월드 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 전주팀장 워크샵: 7일 10시~15시
장소-군산 옥봉성당
5. 교리교사 교구 지구 임원 및 각 분당 회장 7월모임: 8일 오후 6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교리교재 대금 완납 바람
6. 교구단위 성령기도회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대상-성령세미나 받은 모든분들
7. 대학생 성지순례: 11일~14일, 회비-3,500원,
접수-가톨릭센터 대학생 연합회실. 교육국
노정: 전주→어은동→한들→성지동→전주 숲정이, 대상-모든 대학생
접수마감-7일까지
8. 교구 신학생 연수회: 14일~17일, 장소-정승근 신태인분당 능교공소 3내(만경대)
9. 평협 임시총회: 14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10. 고 김영구 신부님 1주기 추도미사: 12일 11시, 전동성당
11. 성소피정 안내(고등학생): 일시-26일~28일(2박3일)
장소-서울 성북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신청 마감일-20일까지
문의처-[100]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성프란치스코 수도원(762-1639)
[300] 대전시 중구 복동 96-3 성프란치스코 수도원(22-1722)

※ 특강안내: 성숙한 신앙인을 위한 신앙대학 특강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강 의	강 사	장 소	수강료
13일	오후 2시~6시	철학개론	김영철 교수(전북대)	센타 강당	3,000원
14일	오전10시~오후6시	요한복음	범선배 신부(광주신대)	센타 강당	
20일	오후 2시~6시	모세5경	김민수 신부(광주신대)	센타 강당	3,000원
21일	오전10시~오후6시	그리스도론	이병호 신부(광주신대)	센타 강당	

문의: 교육국-⑥ 0041-3

※ 축! 영명: 성에릭(10일)-윤에릭 신부님
성베네딕도(11일)-박성운·김만석·김용태·김병운·현유복·유영도·
양경배 신부님-축하드립니다

♣ 잠 간!

더러는, 약속한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얼마나 화내고 신경질 부리는 우리들인가. 자기의 직장 상관은 물론 하다 못해 친구와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서로 마음상하게 되고 잘못하면 우정이 깨지게 된다. 하물며 하느님 아버지 뵙으러 가는 날-미사 시간은 어떡해야겠는가. 상매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편에서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더구나 그분이 하느님일진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으레 그분이 먼저 기다리게 하는 못된 버릇(?)-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느님을 만나러 온다면 미사시간만큼은 늦지 말아야한다. 좀 일찍 오자. 미리 와서 몸과 마음을 여유있게 준비하고 그분을 만나자.

진리가 우리를 소유한 것이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것이 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으레 늦게는 지각생이 또 으레 맨 먼저 나가더라-고 어느 젊은 신부님의 푸념스런 한마디가...

요심이 (622) 감병오



영지·영지·영지!

최고의 건강식품 불노초

영 지 버섯

- *적절 생산하여 저렴하게 보급합니다.
- *재배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합니다.
- *연락 주시면 안내서 보내 드립니다.

월성 영지 농장

최 택 승(날시스)

강 영 순(제노베파)

이리 ③4773 · ②8953

이리시 월성동 403

(성글라라 봉쇄수녀원 앞)

전라북도지정 관해 대한방역공사

완벽소독 시범업소

- 1차: 지속성 잔류정밀소독 2차: ULV 초미립자 잔류소독
3차: 옥외속효성연막소독 4차: 지속성(2개월) 완전 구서
1회소독으로 벌레 모기: 1-2개월 박멸
 쥐: 2-3개월 퇴치
(월 1,000원: 10명 내외)
※사람, 가족에는 무해 무독입니다
전화 (전주) 3-6037 · (정주) 2-8552
손 기 영(안드레아)

○·A(사무자동화)기기 전문판매

(주) 신도리코 } 전주 특약점
신도사무기 (주) }

신도 ○·A 상사

장 병 갑(프란치스코) · 오 희 원(헬레나)
전화 2-3678·6-9666
취급품목: 복사기·팩시밀리·OFFSET인쇄기·
REX ROTARY동사기·AUTO STAMP·
OHP·각종 사무기기 및 소모품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용태
사무실 2-7032 보좌신부 김철재
수녀원 " 사도회장 이흥재

- ☆ **축!** 본당신부님 영명: 11일(성베네딕도 축일)
축하미사—오늘 공식미사
많은 기도와 축하를 드립니다
- 2.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사도회원님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3. 부녀회 창립총회: 9일 어머니미사 후
많은 참여 바람
- 4. 새성가 연습: 매주일 미사전 15분간 성가연습 있음
일찍 오셔서 성가연습에 임합니다
- 5. 본당 울뜨레아: 오늘 저녁 8시
푸르실리스트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람
- 6. 전자울건 기금 신입합니다
이홍천-100주좌, 한성희·최광식·박원주-각 2주좌,
김경희·이재남·이순영·박정선·제은희·박정자·
모준영·이인석·강정자·이종관·김점순·유용근-
각 1주좌, 계-59만원, 누계-93만원
- 7. 공소 순회미사: 13일 저녁 8시-황운리공소
- 8. 금주전례: 제2조, 차주는 제3조가 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34,260원 **교무금:** 408,000원
신축기금: 171,000원

- 5. 성가정을 이룩하는 방법: ①자녀들 학교 갈 때에 부모는 작은 십자성호를 자녀에게 놓아주기
②가정에서는 자녀의 본명부르기
③매 식사때는 식사전 기도를 적어도 한 식구가 성호를 놓고 감사기도 다음 식사
※이 세가지는 우선 철저히 실시하도록 노력합시다
- 6.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에 있겠으니 새로 영세한 교우나 쉬었다가 회개하는 교우도 참석 바람
- 7. **줄넘기는** 집에 가서 보신 후 보관하시고, 휴지는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 8.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가톨릭시보를 보시도록 하였으니 사도회 사무실 구역함에 있습니다
- 9. **첫영성체 교리:** 9일~27일까지
신청바람(대상-국교 3~6학년)
- 10. **차주전례:** 해설-김상근·문미옥
독서-①김병희 ②김한기, 기도-사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일반-445,330원 중·고-11,260원
주일학교-4,710원 계-461,300원
교무금: 339,5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영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성원
수녀원 " "

- 1. **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 2. **자모회:** 12일 12시
주일학교 자모님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3. **성우회 하기 단합대회:** 14일(다음주)
공식미사 후 출발
- 4. **방지거 3회:** 13일
- 5.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매 수요일 저녁 8시
- 6. **반회합:** 11일 저녁 8시(저녁미사 없음)
진5반-신부님(안가타리나), 태1반-김수녀님(신재파), 태2반-이수녀님(최테레사)
- 7. **여름 성경학교가 곧 시작될 예정:** 6일간
모든 신자들은 여름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수실분은 지도수녀님과 의논하세요
- 8. **금주 형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차주 형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 9. **금주전례:** 해설-김계석, 독서-①양규철 ②허정자
차주전례: 해설-최희숙, 독서-①조성호 ②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193,530원 **교무금:** 462,62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기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병오

- 1. **축!** 첫 영성체식: 7일 오후 3시
- 2. **사도회:** 공식미사 후
- 3. **클라라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 4. **자모회:** 다음주
- 5.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장우회(화장실 신축금)-10만원, 익명(2명)-각 5만원, 엄익정·조미령-각 3만원, 김고만-2만원, 김산호·최양례-각 1만원 감사합니다
- 6. **금일 봉헌담당:** 신일균 부부
차주 봉헌담당: 김신규 부부
-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김희진, 독서-①최병래 ②이영희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유철중 ②안득수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최충만 ②최원일
- 8. **중·고 하계 수련회 신청서가 배부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신청서와 참가비는 다음주까지 필히 제출 바람
- **지난주 봉헌금:** 861,850원 **교무금:** 927,000원
특별헌금: 200,6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교성
수녀원 2-4804

- 1. **토요 특전미사:** 13일부터 저녁 7시30분
- 2. **토요 교리반:** 저녁미사 후
- 3. **금주 9일~12일까지 미사 없음:** 본당신부 훈련 관계
- 4. **첫 영성체 교리:** 9일부터 오후 5시
- 5. **주부 성서대학:** 하기방학(8월말까지)
과제-제2경전 다 읽는일
- 6. **85 상반기 효자본당 예산결산보고**
중수입-27,319,760원 총지출-17,749,420원
잔금-9,570,340원
- 7. **건축헌금(납입자)**
30만원-익명·김양숙, 20만원-김영호·문대현·김요배·김용배, 15만원-김찬영·송금자, 10만원-윤석자·허연숙·황순녀·김계중·이영자·박복동·김금자·윤경자·한나희·김종길·이영자·하윤주·박홍해, 6만원-이덕기·최선주, 5만원-이수경·남순애·이옥희·이선희·상개리공소·송길정, 3만원-구옥선·유홍순·조선, 2만원-박경숙·이은자·김영신·함영철·한상완, 1만5천원-오복옥, 1만원-익명·익명·정정원·이수영·신재순·정제복·이영자·임순옥·조순희·김경순·김성숙·권정순, 8천원-이영순, 5천원-허금순·유옥순·이진순·익명·익명
- **지난주 봉헌금:** 350,100원 **교무금:** 446,000원
건축헌금: 2,089,0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영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정우

- 1. **구역 대의원회:** 공식미사 후
- 2. **수고하셨습니다**
교리교사 연수회에 수고하신 자매님들
- **지난주 봉헌금:** 112,450원 **교무금:** 96,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반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낙균
수녀원 2-2276

- 1. **축!** 영명: 11일, 김베네딕도 본당 신부님
※축하식-오전 10시미사 후, 많은 기도 바랍니다
- 2. **성심회:** 13일 오후 2시
- 3.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4. **요나회:** 정기모임-14일 공식미사 후